朝鮮日報 夕刊
本紙特價一個月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金萬進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朝鮮日報社

社說

米穀調査會와 朝鮮米

差別待遇는 不可

一

朝鮮米、臺灣米의 移入問題로 朝野가 떠들고 內閣의 運命까지 問題되엿든것은 아즉 民間의 記憶에 새로운 일이어니와 最近 消息에 依하면 米穀根本策을 確立할 調査會의 官制도 九月中에 發表케 되고、調査會에 提出될 農林省案도 制定되어 米穀統制問題는 또다시 擡頭한듯하다。農林省案中에는 最低公定價格의 決定方法과 最高最低價格內에서의 賣價等에 對하야 改定할 點等이 잇스나 吾人의 가장 關心을 要하는것은 所謂 外地米 即朝鮮米、臺灣米도 統制하야 移入을 適當한 數量으로 加減하고 이것으로서 생길 外地의 過剩米를 考慮한다는것이다。即 朝鮮도 統制法을 쓰되 朝鮮米本位로 하지 안코 日本內地米를 本位로 하야 朝鮮米의 移入을 統制하자는 理論이니 이것은 吾人의 平素의 主張과 마찬가지로 反對치안흘수 업다。

二

무릇 同一領域안에서 物貨가 流通함에 障壁이 업서야 할것은 原則으로 勿論이다。그런데 朝鮮과 日本內地와의 米穀關係를 보면 이原則을 버서나 朝鮮에서 日本內地로 移出되는 米穀에는 制限을 加하고잇다 即從來에는 月別平均의 移入調節이 잇섯고、今春 臨時米穀調節法이 생긴後에는 明年三月三十一日까지 一定限度의 米穀을 政府에서 買上하야 管理하기로 되엿다。이리고야 어찌 한 領域內라고 觀測할수 잇스랴。萬一 朝鮮米가 日本內地米를 威脅하므로서 不得己 移入制限을 하지아니치못한다는 論理가 선다하면 朝鮮의 幼稚한 工業을 爲하야는 日本內地로부터 工產品의 移入을 制限할것이라는 論理가 成立된다。萬一 이 論理가 成立되지안는다면 一方的 利益을 爲하야 他方의 利益을 犧牲한다는것밧게 안될지니 이것은 差別待遇라 안을수업다

三

勿論 日本內地人은 兵役의 任務가 잇고 公課負擔에 잇서서 朝鮮人보다 絶對的으로 多額인것은 事實이다。그러나 兵役云云은 朝鮮人에게 要求치 안는것이오 民間의 意思가 그런것은 아니며 公課負擔에 잇서서도 絶對的으로는 朝鮮人의 負擔이 적으나 朝鮮人의 富와 施設로밧는 恩澤의 比例로보면 相對的으로 더만히 負擔하는것이 事實이다 況朝鮮의 產米過剩이 日本內地의 食糧問題를 解決키爲한 產米增殖策에 依한 것이라는것을 念頭에두고 이 現狀을 考察할때 넘더무도 日本內地本位임에 一驚치 안흘수업다。

四

今年은 凶作을 豫想한다。그러기때문에 朝鮮米의 出廻量이 적으리라는것은 推測키 不難하다。勿論 이것만가지고 반듯이 朝鮮米에 對한 根本對策을 延期或은 中止하라는 것은 아니나 農業은 工業과 달라서 곳 人爲的으로 縮減되는것이 아니오 그해에 따라 凶豐이 잇는것은 多年의 經驗으로 證明하는바니 朝鮮米問題를 危險視할것이아니다。要컨대 朝鮮米는 한 領域안에서 產出되는것임으로 差別待遇를 할것이아니라는 點과 이 意味에서 固定的으로 朝鮮米의 移入統制를 할 法律을 制定할 必要는 업다잇는다。當局의 善處를 促하는바이다。

現行調節法强化로 移入許可制加味?

農林、拓殖兩省妥協點이 注目

再燃된 朝臺米問題

【電通東京電話】米穀對策調査會도드듸여 來月中旬에 開會하게되엿는데 今回의 調査會 中心議題는 日本內地의 米穀問題보다 오히려 朝、臺米의 統制問題에 잇다고 보인다 前內閣의 頭痛거리이든 이問題를 如何히 處理할가는 자못興味잇게 觀되는다 即農林省은 日本內地의 米穀需給을 調節할 立場에서 朝、臺米의 移入을 何等의 形式으로든지 抑制코저하고 拓務省及植民地側은 差別的待遇絶對排擊의 立場을 固守하고잇서 兩者의 利害는 全然相容되지안하야 第六十五議會에서는 이 問題에 對한 閣內의 不統一로부터 內閣의 危機까지 釀成될 憂慮가 잇든 難問題이다 二、三年前에는 外地米問題라고 하더라도 出廻期의 日本內地移入殺到가 問題이고 月別平均的의 移入調節이 論議될 때름이엿스나 最近에는 供給의 絶對量이 過剩되야 外地米의 移入은 月別平均뿐만아니라 어느程度의 數量을 絶對로 抑制할 必要가 생겻다 그런데 이 問題는 이미 第六十五議會에서 論議되엿고 農林省으로도 單只日本內地만의 立場으로부터 經濟施設을 伴치안흔 移入의 許可主義或은 課稅制度가튼것을 取하기는 不可能하다고 覺悟하고잇다 林、拓務兩省이 如何한 點에서 妥協할지 그推移는 자못注目된다 그러나 外地米統制는 第六十五議會를 通過한 臨時米穀移入調節法이 來年三月三十一日로써 滿期가 되므로 꼭이것을 確立할 必要가 잇슴으로 結局이 移入調節法을 擴大强化하야 다시移入許可制度를 加味하는데 落着되지나 안는가한다 則現在 調節法의 買上數量을 相當大量으로 擴大하고 이를 義務的으로하야 管理制度를 確立하는 同時에 一方外地米의 日本內地移出은 政府의 許可에 依하는 制度等을 設立식히라는것이나아닌가한다는疑問이다

北鐵蘇聯側幹部 續續莫府에 召還

首腦部更迭暗示?

【電通哈爾賓二十六日發】莫斯科政府는 北鐵現地紛糾를 豫想하고 北鐵蘇聯側首腦部의 革新을 期키爲하야 先般某幹部를 突然莫斯科에 召還하엿는데 今回에도 北鐵理事 바드니히氏를 同樣召還하엿슴으로 氏는 二十六日 午前八時 當地를 發하야 歸國하엿다 右는 對滿洲國交涉이 失敗되고 特히 運賃問題가 完全히 敗北된까닭이다。이가티 北鐵幹部가 續續本國에 召還되는것은 不遠한將來에 北鐵首腦部의 全面的更迭을 暗示하는것으로 이로서 莫斯科政府는 北鐵現地의 狀態展開를 圖하라는것으로 觀測되고다

米織物工組合 副會長態度豹變

【電通華盛頓廿五日發】全米綿織物工業勞働組合은 昨日政府의 勞働關係委員會의 調停申請을 拒絶하엿는데 副會長 소만氏는 今日에 일으러 突然態度를 달리하야 『罷業을 防止할수잇는 機關은 勞働關係委員會뿐이다』라고 말한다 이가튼 態度豹變은 組合內部의 不統一을 暴露한것으로보이는데 同委員會가 調停에 선다하더라도 組合側의 要求를 支持할지 안할지

北鐵交涉決裂의

四千萬圓差異 開戰하면 一日戰費

結氷期到來로大軍操作에便宜

米國官邊事態重視

【電通華盛頓廿五日發】權威잇는 側에서 仄聞한바에 依하면 地方의 雰圍氣는 極端으로 緊張되야 어느때 爆發될는지도 豫測키어려운 重大局面에 到達한 것가티 觀測되야 事態를極히 重大視하고잇다 이 緊張된 事態를 招致한 重要原因의 하나인 北鐵買却交涉의 決裂은 雙方의 主張의 差異四千萬圓으로 妥協되지못한點을 指摘하야 이 差異는 萬若開戰하면 겨우 一月分의 戰費에 不過하는데 兩國民은 交涉決裂의 危險을 무릅쓰면서 一日分의 戰費를 액끼여 交涉成立을 等閑視하는것이라고본다 一方 軍事專門家는 冬期가되야 北鐵地方이 氷結狀態가 되면 大軍의 操作이 便宜케될으로 이때가 開戰의 時期일것이라고한다

政府는臨時議會 召集意思全無

【東京電話聯合】臨時議會 召集要求에 對하야 政府는 二十五日 政友會로부터의 米穀對策調査會에서 具體案을 作成한後臨時議會召集與否를 決定한다고 하야 臨時議會의 召集에 對한 態度를 明瞭히 하지안코 責任을 調査會의 結果에 轉嫁한것은 政府에 臨時議會의 召集意思가 업는것을 明瞭히하엿다고보인다

北鐵東部線에 多數의 匪賊來襲

【哈爾賓二十五日發聯合】二十五日北鐵東部線二層甸子日本商太陽公司事務所에 多數의 土兵이 襲來하야 掠奪暴行을 加하고 逃亡하엿는데 이지음店員 三方庄一(三五)(兵庫縣)生和十郎(二四)(島根縣)의 兩名은 瀕死의 重傷을 입고、他의 一名은 겨우 避身하엿다

華府條約廢棄는 豫備會商開會前?

手續時期를 愼重考慮

【東京電話聯合】華盛頓條約 廢棄問題는 海軍軍縮會議에 際하야 日本政府는 如何한 旣存條約에도 拘束되지안코 全然自由로운 立場에서 主張을 展開할수 잇도록 速히 廢棄通告를 發하라는 海軍側의 主張에 對하야 各關係의 意見도 一致되엿스나 廢棄通告時期及手續에 關하야는 아직도 硏究할 餘地가 잇서 目下法制局及 外務、海軍兩省에서 愼重硏究中이나 이와 不可分의 海軍軍縮對策案이 成案되는대로 함께 來月上旬廟議에 附하기로되엿는데 廢棄通告時期에 關하여는 오는十月開會의 軍縮豫備交涉에 備하야 海軍側에서는 豫備會商前에 하라고 督促하고잇는데 外務省側은 豫備交涉前에 敢行하야 公然히 英米의 感情을 刺戟하는니보다 豫備交涉의 成果를 본後臨機應變의 措置를 하여도 늣지안타고 主張한다 豫備會商은 十月開會키로 되여잇지마는 最近의 情報에 依하면 米國은 日本의 條約廢棄意圖에 狼狽하야 그海軍計劃도 太平洋岸에 主力을 傾倒하야 現在 大西洋艦隊의 一部를 本據를 太平洋에 移轉한다고 發表한事實이 잇는 一方 會議主催國인 英國에 對하야 豫備交涉을 延遷코저 腐心하고잇는 模樣이다 英政府도 亦是 歐洲政局의 動搖에 精神을 集中식혀 米國의 遷延策에 和할 念慮가 업지도안타 豫備會商은 關係國間에 個別的으로 行하는 關係上 相當한 時日을 要하야 萬一豫備會商이 越年케되면 外務省의 主張과 가티 豫備會商의 成果를 기대려서는 英米의 好策에 빠질 念慮가 만흠으로 海軍에서는 이 點에 關하야 最近英米의 態度를 嚴重警戒하고잇는 模樣이다

果然! 重大化한 北鐵交涉問題 (五)

蘇聯政策의 眞意打診

韓普容

革命露西亞는 一九一九年七月의 所謂 카라한氏의 對中聲明에 依하야

北鐵拋棄의 意思를 表示한일

이잇섯스나 그後 一九二四年에 締結된 蘇中協定第一條에는 『東中鐵道를 中國에 파려도 조타』는 明文이 規定되여잇다。이것은 革命直後의 쏘벳트政府의 北鐵에 對한 觀念、政策의 變遷을 말하는 지는 알수업스나 何如든 一九二九年에는 中國側의 北鐵利權回收運動에 對하야 武力에 訴하여서까지 (蘇中事變) 自國利權을 擁護하엿슴은 우에서 이미 敍述한바와 갓다。蘇中事變後 一九三○年乃至三一年에 亘하야 中國에서는 莫德惠氏를 蘇聯에 보내여 蘇中再協定에 努力하다가 如意치못한事實드 旣述한바이어니와 該交涉中에는 中國側의 北鐵買收問題가 重要한 部分을 占하여섯는데 蘇聯側呼價가 十八億留라는 宏壯한 高價이여슬뿐안이라 其他

買收資金

은 外國金融에 依치말고 中國自身의 資金에 依하라는等 여러가지 까다라운條件이 잇슨때문에 交涉이 進捗되지못한 事實도 여게서 暫間 指摘할必要가잇다。蘇聯邦의 日本에對한 北鐵讓渡說은 一九二七年十二月後藤新平子가 莫府를 訪問하던그때가 처음이엿다。그러나 當時의 讓渡說은 新聞紙上에서만 떠든 風說에 不過하엿고 이러타할만한 아모具體的무엇은 업섯다。이리하다가 北鐵의 蘇聯側權利 一切을 日本이나 滿洲國側에 讓渡하고십다는 今回의 北鐵讓渡說이 擡頭하게 된것이다 今回의 讓渡交涉은 昨年五月二日 蘇聯外務人民委員長 리트비노브氏가 駐蘇日本大使 太田氏에게 正式으로 提議한데 基因하거니와 그 動機는 北鐵을 中心으로한

蘇滿紛爭

에 發端한 것으로 推測된다。滿洲事變以來의 北滿에 잇서서의 日本軍隊의 活動은 莫斯科神經을 刺戟식히지 안을수 업섯다。쏘벳트聯邦은 어떠케하면 日本軍隊의 活動을 妨害할수잇슬까?하는 對策에 苦心한 同時에

一朝有事 之時에는 赤軍移動

을、便宜케하기爲하야 滿洲事變이 이러나던 一九三一年九月부터 三三年三月까지의 사이에 蘇聯은 北滿鐵道 最優秀의 『데카보드』型機關車八十三臺、山字型機關車一臺、貨車三千八百輛及 各種客車百九十七輛을 拉去하엿다。(以上 『데카보드』型機關車의 八十三臺는 北鐵全機關車의 五分의一이오 貨車三千八百輛은 北鐵全貨車의 三分의 一에 該當한다한다。)以外에 蘇滿兩國間에는 北鐵≡자바이칼鐵道間의 不法直通輸送問題及北鐵에依한 자바이칼≡우스리!間의 不法通過輸送問題等에 關한 紛爭이 잇섯다。此에 關하야 滿洲國은 時時로 抗議하엿고 또蘇聯側에서도 그理由主張을 表明하엿스나 昨年四月에 이르러는 滿洲國에서 『最後的決意를 下야 實力으로서

鐵道連絡을 禁止하야 蘇滿

乃至 日蘇關係는 刻刻으로 險惡化하게되엿다。그리고 蘇聯政府가 北鐵讓渡를 提議한때가 바로 이때이엿다。이와가티 觀察하면 偶然이엿던 因緣이엿던 帝政露西亞로부터 革命露西亞에 이르기까지 吾人은 北鐵에對한 露西亞의 政策에잇서 一脈相通한 그무엇을 發見할수잇다。即 北滿鐵道는 露西亞의 極東政策實現上 重大한 役割을하여왓다。帝政露西亞에잇서서 東中鐵道의 一部讓渡를 具로서 日露協定改締를 有利히 展開식혓고、革命露西亞에잇서서 今回의 讓渡提議로 急迫하엿던

日蘇危機를 緩和식힌 同時에

그사이 極東軍備擴充에 成功하엿다。뿐만안이라 一九二七年 後藤子가 蘇聯訪問時에 北鐵賣渡의 風說이 上海方面으로부터 傳波되엿든것은 當時 中國側에 猛烈하엿던 北鐵利權回收運動을 牽制하려는 蘇聯系放送으로 볼수잇스며 今回의 讓渡交涉이 開始(昨年六月)된後 十月에 이르러 價格差異로 交涉이 停頓되자 米蘇復交를機會로 北鐵을 米國에 賣渡하려한것은 日本牽制上 적지안흔 効果를 내여섯다。또 北鐵讓渡交涉繼續中 交涉內容 未發表의 約束이잇섯슴에 不拘하고 今回交涉開始以來 二次에 亘하야 交涉內容을 暴露한것이 日本을 牽制하려는

目的의 手段

에서나온 것임은 勿論이다。北滿鐵道는 自古以來로 問題가 만헛고 또 問題를 만히 이르킨 線路이다。어느때에는 日露戰爭을 惹起식혓고 어는 때에는 日露中三國의 協和離反의 씨가되엿다。어느 때에는 國際管理(케렌스키革命時)로도되엿고 어느 때에는 蘇中共同管理로도되엿다。蘇中事變은 北鐵때문에인것이오 滿洲事變도 北鐵과 關聯이 깁다。以上은 北鐵이 極東政局에 잇서 얼마나 크다란 役割을 하고잇는가를 如實히 雄辯하여준다。西歐諸國과 不侵略條約、親善條約、侵略定義條約締結에 成功하엿고 東歐로 카르노條約締結、聯盟加入等의 實現氣運이 濃厚하야 西部戰線無異狀의 쏘벳트聯邦은 蒙古、新疆에 確乎한

勢力扶殖

에 功하엿슴뿐인이라 極東一帶의 軍備充實이 整然한 今日에 一九三五、六年의 國際危機를 압두고 北鐵賣渡에 汲汲할理는 萬無한일이다。滿洲國에서 呼價의 거이 全部를 支拂하고 其他條件을 受諾한다면 蘇聯은 自國의 言行에 拘束바더 北鐵을 賣渡할는지도 모르지마는 大局的으로본다면 蘇聯邦에 잇서서는 價格四千萬圓쯤의 差異란 거이 問題의 건덕지가 안되는것이다。이러한 情勢를 日滿當局이 充分히 諒解하고 또

巨事覺悟

의 決意가 업다면 昨今 北滿의 空氣가 저가티 險惡化한다하드래도 어떠한 形式으로든지 北鐵讓渡交涉은 不遠한 將來에 또 다시 열이게될것이다。(完)

華府倫敦兩條約 處理問題를 政友會監視

【東京電話聯合】華盛頓倫敦兩條約處理問題에 關하야 政友會는 政府의 所信을 質하야 그對策을 그릇침이업도록 하기爲하야 二十五日代表가 岡田首相과會見한즈음 政府의 決意를 質한바 岡田首相은 華盛頓條約、倫敦條約의 廢棄通告에 對하여는 政府의 方針은 決定되엿스나 그說明方法에 關하여는 外交의秘密에 屬하는關係로 發表키어려우나 政府는 遺憾업기를 期할 決意를 가젓슴으로 政府에 暫時委託하라고 言明하야 政府의 決意를 表示하엿슴으로 政友代表도 政府의 하는바를 暫間監視하기로 되엿다

內外週史

國策審議會流產

國策審議會의 設置氣運이 漸次로 濃熱하야가는 이지음 二十三日鈴木總裁로부터 政友會에서는 岡田內閣成立當初에도 이미 閣僚를 參加시키지안코 잇는만큼 지금새삼스러이 國策審議會에 代表를 派遣할리가 업다고 聲明하기에 이르매 岡田首相으로서도 國策審議會를 가저 擧國一致的國策調整機關을 삼으려고하얏든만큼 政友會의 이러한 態度에 不拘하고 그設置를 [illegible]

海軍將校의 建白

華府條約廢棄에 對하야 即時通告를 發할것이라거니 그리 急히할것이 업다거니 日本朝野의 議論이 紛紜한 이지음 實施部隊의 將校들이 海軍省首腦部의 中堅將校들과 協議를 거듭한結果 通告延期를 主張하는 傾向이잇스나 即時 廢棄를 通告하야 日本의 態度를 闡明하는것이 當然하다고 各各所屬長官을 經由해서 建白書를 提出키로 決定하얏다。

在滿兩機關對立

在滿機構改革問題가 方今重大한 政治問題로 化하야잇거니와 現在滿洲에 잇서서 三位一體制中의 二大分子인 大使館과 關東廳은 兩機關의 權限으로부터 感情이 疏隔되야 잇는터로 今番關東州拔檢事件을 大使館에서 取扱함에 따라 그 感情은 더一層激化되여잇는모양이다。

民間航空을 擴充

지금日本으로서는 國際的危機를 臨하야 航空에對한 不足을 가장 切實히 느끼고잇거니와 今番林陸相은 海軍、遞信兩省으로 더부러 協議한後 航空軍의 豫備로써 民間航空事業의 擴充을 決定하고 이미 그 根本方針을 決定하고 急速한 實現을 도모하게되리라한다。

蘇聯의 經過發表

蘇聯에서는 十日타스通信을 通하야 北鐵交涉의 一切經過를 發表하얏슴으로 日滿兩當局은 蘇聯의 態度에 크게 憤慨하는 同時에 다각각 그經過를 發表하기에 이르럿다。蘇聯의 이 發表로말미아마 日蘇間의 感情은 더一層疏隔되는 同時 一方으로 北鐵內部에는 蘇滿의 對立狀態를 釀成하고잇스며 一方으로는 北鐵列車顚覆事件을 因緣하야 蘇[illegible]

米全艦隊의 移動

今春大西洋에 集結되야잇는 米國의 全艦隊는 不遠間再次 太平洋으로 도라오고 또 本來大西洋上에 배치되고 잇든 巡洋艦隊도 半永久的으로 太平洋으로 옴기리라고하는바 明年에 海軍會議를 압두고 國際關係가 極히 微妙한 이때 米國의 이와가튼 態度는 國際感情의 悖然한 刺戟일뿐 아니라 事大主義에 몰든 中國으로하야금 다시 抗日工作을 招致케할 念慮가 업지아니하다고 海軍當局은 遺憾의 뜻을 表하고잇다

米穀根本對策 民政黨獨自案

今月中에 作成完了

【電通東京電話】民政黨은 米穀根本對策에 關하여 大體今月中의 獨自案作成을 完了하기로 되엿슴으로 이를기대리여 政民兩黨의 協定關係上 政友側과 交涉할 意向이다 同時에 九月로부터 開催될 米穀對策調査會에서도 自黨의 委員으로 하여금 黨의 案을 提示케하야 協力一致하야 될수잇는대로 速히調査會案作成에 努力할方針을 取하고잇다 또方面國策審議會設置에 關하여는 國內外의 時局이 重大한時 安當한 國策樹立에 當하여는 政黨을爲始하야 各方面의 協力을 必要로하는 以上 此際 國策審議會가튼것을 設置하야 國策을 審議하야 擧國一致의 實績을 어드면은 大端히 必要한일이라하야 具體化를 希望하고잇다

中國波斯間에 聯盟理事國競爭

【電通쥬네브二十五日發】聯盟非常任理事國인 中國은 오는 九月에 任期가 滿了됨으로 九月의 聯盟通常總會會期中에 改選이 될터인데 中國은 이미 重任을 請願하고잇스나 今日 波斯로부터도 聯盟事務局에 對하야 文書로써 非常任理事國에 選擧되기를 要請한 結果 改選에는 中國과 波斯兩國이 激烈한 競爭을 할것으로 豫想되며 或은 波斯가 當選되지나안할지몰른다

加奈陀內相 케ㅡ한氏渡日

【몽크바二十五日發聯合】加奈陀內相 케ㅡ한氏는 二十五日 쌍크바發의 엠푸레스·오푸·자판號로 日本을向해出發하엿다 同氏의 渡日目的은 休暇를利用하야 日本의 山水를 觀賞하기爲함이라고하나 무엇인가 重大한 政治的意義를가진 模樣으로 出發에際하여는 一切面會를 避하엿다

八面鋒

◇한참 숨엇든 米穀統制問題 漸次로 擡頭키 始作。

◇統制는 조치만은 朝鮮米의 移入을 制限함은 不可。

◇日 差別待遇。日 農作에 凶豐이 잇는때문。

◇京城府에서 人事[illegible] 말죽이고 오양깐 고처는 格。

◇大連에서 微賤한 職業을 가진 同胞 數百金品을 災民에게 보내달라고 依賴。同族愛는 貴賤이 업는 모양。

◇서늘한 가을 바람 朝夕으로 얼굴을 시처가。조흔사람에겐 限업시 조흔때나 헐벗는 罹災民은 將次 寒露霜降을 어찌하리。

日曜氣配

◇株式 氣配不變秋季市勢를 압두고 押目買氣强하나 아즉伸기이 充分치못하야伸腦 大新 一九○ 日產 二○五 東新 一三三、三 鐘新 一三三、三

◇期米 氣配底堅 政策氣分으로 買躊躇이나 旱魃念慮警戒裡에 底堅

◇綿米 氣配不變

人事·集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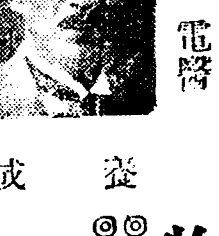
▲朴興植氏(和信社長) 仕入用務를 帶하고 二十六日 十一時三十分車로 東京、大阪에 向發

今日本紙四面

培材高等普通學校 補缺生徒募集
第一學年若干名 出願期日 九月六日正午까지 試驗期日 九月六、七兩日 午後一時부터 (京城貞洞三四)

學生募集 南大門自動車學校
第一實習場(裁判所前) 第二實習場(大門外) 市外各地
京城府太平通二丁目三六七 電本八六七番 振替京城二三○五六 (要二錢)

箕城醫學講習所生徒募集
一、速成科六十人 志願日十月八日까지 開學日十月十日 本科補缺生若干人 開學日九月一日
醫師醫生試驗問答集發行 詳細는 二錢切手添付申込次第送呈
平壤府新倉里一七 電話一六三二番

物理醫療師特典生募集
認可 電醫 養成 鮮內唯一

◎最新物理醫學全科教授 院長東京電醫創始學長
◎近近規則發布되여도本院卒業生은開業資格잇슴
開院一週年記念키爲하야大特典을與함 但願書受付順으로三十名限으로速히願書提出하라 【規則請郵送함】 葉書로申込하시옴
京城黃金町三丁目三四四 認可 京城電醫講習院 朝鮮物理醫學校創立事務所

時計及蓄音器完全修理에 對하야
京城府本町二丁目 標準時計 Ⓜ 村木時計店 電話本局四七一·四七二·四三七七

最新旋盤機가 輸着되엿습니다。如何한 難物時計라도 新旋盤機를 使用하야 破損部分品의 工作補充에 依함으로 完全修理가 되엿서 今般 帝都에 잇서 日本一이라고 稱하는 時計修理大先生師와 時計修理師數名을 招聘하엿습니다 아모쪼록 時計及蓄音器의 修理는 村木으로 急하신분은 곳하여드립니다。通知하시면 곳往訪 弊店은 從業員總員八十名이 全力으로써 奮鬪하고잇습니다 指輪、帶止類其他 金工細工도 합니다

恩給 長期短期恩給有利 立替照會細密 京城樓閣洞一六○ 興商會

株式會社 漢城銀行
本店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十四番地 電話光化門七六○、二○五番 振替口座京城二一○
支店及出張所 (京城、南大門、東大門、西大門、鍾路、永登浦、水原、開城、大田、永同、大邱、釜山、延安、平壤、平壤大和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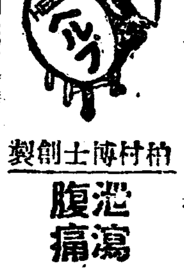
印章盜難廣告
昭和九年八月十二日捕衣와妻朴雲子의齊印을盜難되엿기玆以白 元山府北村洞七六 趙啟震

원문감
德世洋行 京城府鍾路三丁目七一 電光二八 振替口座京城八○四番

고무신은 거북선
京城東大門外서울고무工廠 電光九一一五九

實用的이며最新式인 岡部式 稻扱機 愛用하라

農村救濟를爲하야奉仕的破格廉價
今年에 稻扱機는
今秋의準備는只今하시오
組立 一人用 一臺特價金六圓九拾錢 二人用一臺金八圓九拾錢
農具品專門製作 鑄造鐵工業
大阪市西成區出城通四丁目九 岡部合名會社 電話川一四六三 二一六一 振替大阪一九六一


柏村博士創製
腹瀉痛
胃腸病第一靈藥 헤루푸
食傷·吐瀉·消化不良·胃腸加答兒等

麻浦桃花洞 桃花劇場 電話龍山一三三三
八月二十七日밤부터 公開 料金 階上十五錢 階下十錢
◇米國 파라마운트社特作映畫 人情活劇 戀의巴里兒 全七卷 ◇監督 가스니에氏 主演 크라라 보우孃
◇河合映畫社超特作映畫 現代悲劇 新婚生活 全六卷 ◇主演 葵梧路 監督 吉村操氏
◇米國 R·K·O社超特作映畫 大活劇 西部王 全七卷 監督 로바트·H 데라시氏 猛優 로빅쓰氏力演

◇……가을을 알리는 서늘한 바람(한강변의 풍경)

既望의月光도淸澄
爽凉·秋色은漸深
장마거친뒤에바람은서늘해
昨今의氣溫도降下

◇……처서(處暑)와백중을 보낸지이틀에 장마비가 거친 이십사일 밤부터완연히 일긔가서늘하야땀스괴가거치고 감벽(紺碧)색하늘은 가을을 늣기게하여준다 경성측후소원의 말을들으면 칠백오십팔『미리』나되는고긔압이몽고(蒙古)에서시작하야 북쪽중국을거치여 조선쪽으로 퍼지고잇서서 그동안 남해의 저긔압에싸여무더운더위와 지루한장마속에허덕이든 조선도이제는 신추가차저와서 들악에네려서면 점아가나저진듯하고들의풀매듸가여물어간다

◇……레년에비하면 보통보다 조금긔온이나저젓스나현저한차는업다 고하며 이서늘 함이길게 계속되겟느냐하면 꼭 그러치는안코물원간 조그만 더위가또올것이로되 아즉당분간은 이서늘이계속할듯하다고한다 더욱이지루한장마뒤에일긔가개이고월광이맑어서이십오일밤은 유려으로추칠월 긔망(旣望)이라 적벽강에서소자첨(蘇子瞻)의홍치를도와든유서깁흔맑은달이처휘(淸輝)를터옥날려유자(遊子)의마음을 간즈리고 못그늘에매친 이슬방울이진주알가티맑고동그러달아래거니는규수(閨秀)의정회를간절케하얏다

◇……거리의행인은 억개짓이 생긔잇서보이고 전차를네리는 여름손의 모시옷자락은어듸인지 모지라저가는듯잠자리의날개와 가티쓸쓸한빗과 색을 띄어보는사람의관능(官能)을자극하야준다숩 그늘에매미소리가『템포』느리게울려올때마다당가잔듸속에는 귀또람이의은방울소리밧부고길가의『아가시야』에꼬투리(莢)가여물어간다

左翼文人層의檢擧
全面的으로擴大形勢
全北警察의『新建設』社關係로
今日까지七名또檢擧

대화전(大和田)전북고과장이 인솔하고 상경한전북고등과원들은 이십륙일 일요일에도계속하야 시내종로서와 본정서 량서고등계의응원을 어더가지고 시내에서 활동중인데검거는 좌익예술운동진영의 남은사람들총으로 광범하게빠칠모양으로서 이십오일오후다섯시경 종로서원의응원아래 리화동(梨花洞)일백구십오번지에서 여러번 신건설(新建設)무대에선일이잇는 림화(林和)씨부인 리귀례(李貴禮)씨와 가회동(嘉會洞)사십삼번지에서밤금인천(仁川)해수욕장으로 부터도라온 역시신건설관계자요 좌익평론가인백철(白鐵)씨를검거하야종로서에 류치해노코 이십륙일아츰에는 위선리귀례외 그전일에 검거된학생누명은전북으로압송하엿다

반금도계속하야 각방으로맹활동을계속중인데 이십륙일오후한시경에는 새로히 영화평론가 김유영(金幽影)씨도 검거되엿스며 이리하야 이미이틀동안에검거된인원이 륙칠명에달하엿고 검거는더욱확대될모양이다

東京日活系映畵舘員總罷業

【電通東京電話】 일즉부터쟁의중이든 일활(日活)종업원의부쟁는 이십오일밤에이르러 드듸어폭발하야 동경시내 삼팔상설관의 종업원전부가 결속하야 오후팔시반부터 흥행중임에 불구하고 종업원 전부가 집으로 도라가게되야 이뜻을 각관에 인사를한후 순전한총파업을하엿다 종업원은 신전구신보정(神田區神保町)일정목삼십이번지의일영(日映)본부로도라가 금후의투쟁방침에 대하야협의한바잇섯는데 쟁의는 점차확대될모양이라한다

中國人老書家
楊翁의美擧
휘호료를수해동정에바칠터
三日間冷洞서揮毫

삼남수해의 참담한상황을 들은중국 현대명필가가 휘호(揮毫)를하여 리재민구제금을 연출하겟다는 국제적동정의 아름다운소식——본적을중국사천성간현(四川省簡縣)에둔 양조선(楊草仙)(六六)옹은 현대의명필로서동양에 그의명성이쟁쟁한 희세의로옹인데 얼마전부터 조선에와서 각방면의의뢰를바더 휘호를하고잇든바 이번삼남재해의참장을자세히듯고시내서부방면위원리 리원철(李源哲)씨의주선으로특히이십륙일부터이십팔일까지삼일간매일오전십시부터 오후네시까지에시내랭동(冷洞)이십일번지서부방면사무소에서 휘호를하여그수입을 삼남리재민구제금으로 의연하여 본사로축탁하게되엿다옹은백세에갓가운로령임을무릅쓰고만리이역에객우(客寓)의몸으로리재동포를위하야 자진하여 수고를하게된그국제적 열의에 칭송하는소리가놉다 (사진은 양옹)

海北鎭의士兵團
同胞農場을襲擊
自稱中華獨立運動員十數名
金品掠奪、五名拉致

【齊齊哈爾二十五日發聯合】 당지에서온 정보에의하면 지난 이십일에 해북진(海北鎭) 동방사리되는곳 조선인농장에 중화독립운동원(中華獨立運動員)이라고 자칭하는 반란병십수명이 엄습하야와서 현금 팔백여원과 기타금품을 략탈하고 조선인다섯명을 랍치하얏다 급보를밧고 이십륙일 장곡천(長谷川) 부대○○이 동지로 급행하엿다

海賊에拉致된 岩永參事被殺

【哈爾濱二十四日發聯合】 할빈하류지방에서 괴선 영구호(營口號)를 마적이습격할제 그들에게 납치되엿든 소식을모르든 암영(岩永)부참사관은 참살시체로되여 비극도(?克圖)의북방 십오중리의지점에서 발견되엿다는뜻의통지가이십사일빈현(賓縣)참사관으로부터잇섯다

漢芝面各矯風會에서
義捐募集에再活動
各會員들이發奮盡力

【漢芝面】 창원동촌에의 때뜻한사랑을 기대하며 전민족에의동정을 바라고잇는 삼남수재의동포를위하야 한지면에잇는 각신여 교풍회가 맹렬한활동으로 각가지미담과함께 다수한의연품을 재지로보내다함은 런일 본지에 보도되엿거니와 금번륙십여 교풍회에서는 또다시종터의연품을거 두어서보내고저 재활동중이라한다

普光里十一區 卅五圓과衣類

【漢芝面】 시외보광리교풍회(普光里矯風會)에서는 일구회장 김선유(金善有)씨와 이구회장 서병희(徐炳熙)씨를 비롯하야 간부제씨의활동으로 가가호호를순방하며거더모은 눈물겨운동정금 삼십오원 오십구전과의류칠십팔점을 본사 한지면지국에의탁하엿다

朝陽少年軍 二次로捐募中

【漢芝面】 시외리래원에잇는 조양소년군 총본부(朝陽少年軍總本部)에서는 삼남수재의연품을제일먼저 거두워재지로 보냇든바 또다시모집코져 대활동중 이라는데 이가특한동정심에 동민들은앗김업시고금품과의류를내노아 산적해잇다하며 본사한지면지국에의탁하리라한다

漢南學院서도 義捐品募集

【漢芝面】 시외한강리(漢江里)에잇는 부산아동교육 긔관인 한남학원(漢南學院)에서도금번 삼남지방에 의지할곳 조차업서갈팡거리고잇는 삼남 수재동포를 위하야이백여명 아동들에게서의연품을 모집 한다는데머지안허 본사한지면지국에 탁의하리라한다

漢江里勞消組 漢興商會活動

【漢芝面】 삼천리바방곡곡에서 삼남수해리재동포에게로 보내달라는 의연품속에는 어느것하나가 눈물어기지안흔것이 업스리만치 감격한이때 시외한강리(漢江里)에는 오백여명의 로동자들이모혀서 이전식내는계(契)를모아 그모힌 자금으로 한흥상회(漢興商會)라는 소비부를내여서 회원들을 망나하야 일취월장으로 확장하여 가든중금번삼남 수해동포를위하야 여긔서도 의연금품을 모집하는중이라는데 본사한지면 지국에의탁하리라한다

동무를구하려다가
저까지마저빠지어
밀양수산락동강의혼이된
두처녀아희의가여운죽엄

【密陽】 밀양군수산내동(密陽郡守山內洞)에잇는손상선(孫尙善)의 맛딸순남(順南)(一三)과한동리잇는김재근(金在根)의둘재딸석이(石伊)(一四)두아해가 이십사일오전구시 아침밥을먹고 수산압락동강에 나갓든두아해는 강에드러가 목욕을하다가보니 전기 순남이란아해가 그만물에빠짐으로 이를본석이란아해가급한마음에저의동보를구할라고애를썻스나구치못하고그아희도마저빠저두아해는비참하게도수중고혼이되고야말앗다이소문을들은동리사람들이물밀듯 몰려와서 일시에는대혼잡을일웟다 아희의 부모들은실신한 사람모양으로 강가에로뛰여다니며 울며불며 자긔네의자식들을찻는 소리는 가슴을미어내는듯하엿다 실로 애처러운일이엿다 이에어선두척을 가지고 시체건지기에 필사의 노력을다한결과 두시간이나지나 오전열한시오십분경에 무심한두시체는물우헤로 소사올너왓다 이를본부모와 군중들은 모다락담하엿다 수산군내의원을 청하야 보혓스나 시간이너무지나 회생의 희망이업다고하엿다 이에부모와 가족들은 끗호로방성통곡하며 애달푼눈물을 흘리면서 작기매장에 착수하엿다

村驛附近에 鐵道自殺女

【一山】 이십륙일오전열시오십분경에경의선제일백이호열차가 경의선금촌역(金村驛)과 일산역(一山驛)사히를지나는데돌연이십사오세가량의농촌부인비슷한녀자가기관차아페뛰여드러서자살하엿다급보를바든소관서대문서에서는 서원이 곳현장에달려가서 검시중인데 시체는두토막으로 끈허저서 부근궤도는 피린한피에 저저잇스며 그신원과원인에 대하야는 방금조사중이다

男子는번번히變心
落心고테飮毒
박정한남자들을원망하며
카페엔젤女給哀話

▼……이십오일오전일곱시경에 시내인사동(仁寺洞)십륙번지『엔젤카페』여급『기요미』라고하는홍순녀(洪順汝)(二○)는자기집에서『마코』담배한갑을진부굴에 푸러서 독한『니코진』액을 맨드러가지고 마신후고민하는 것을 집안사람들이 발견하고 부근신필호(申弼浩)병원에입원시켜 응급치료를가한결과일시목숨은 건젓다

▼……그가꼿다운나히에그와가치 죽음을찻게된 사정뒤에는 운명에 번롱된가엽슨 녀자의반생이 가로노혀잇다 그는일즉이 리천(利川)출생으로서 열네살때에 부근모부호의집에 시집을 갓스나 열아홉살에는 그만청년과부가 되엿든것이나 그의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엿다그후새로운 인생을찻고저 다음해에 상경하엿다가 곳시내 모전문학교학생전모(田某)(二六)와사랑하는사이가되여 광수(光秀)(三)라는 아들까지낫스나 작년이월에 전모는 그만 그를차버리고 고향인대구(大邱)로도라가서 다른처녀와 혼례식을 거행하엿다 락망한 녀자는 닥처오는생활난도 이겨나갈길이 업서서파리한 몸을『네온』의불빗아래 던지고 뜻업는 우슴을웃는몸이 되여서도 오로지 어린아들의양육에전심하엿다한다 그러다가 금년봄에는시내 모철공장에 다닌다는리모(李某)(二六)가열열하게사랑을 구하는바람에 다시너머가동거하야 이미 임신삼개월이되엿는데 얼마전에 그사나이는다시그를배반하고 다른곳에 여자를 구해섯다

▼……이기맥힘안 녀자는 약울먹기전날밤에 그사나이와 크게싸우고나서는 그만 그에게잇서서 너무나한세상을 하직한작정으로독약을바신것이라고한다

五十老人自殺

【仁川】 본적을충남에두고현재 부천군부내면요성리(富川郡富內面暁星里)에거주하는박영원(朴泳遠)(五○)은지난이십삼일오전팔시경 다량의 아편을먹고 고민중에 잇는것을 집안사람이 발견하고 응급수당을 가하얏스나 맛참내절명이되고 마럿다는대 원인은평소에 비관하든것을 보아 염세인듯하나 아편의출처가 미상하야 소관인천서에서는 방금엄탐중에잇다한다

假金비녀詐欺

종로서사법계에서는얼마전부터 관내안국동(安國洞)대총(大塚)전당포와수창동(需昌洞)금목(金木)전당포에수차예공하야 가짜금비녀를 각각칠십원식 교묘히전당을 잡피어간일이 잇섯슴으로 암암리그범인을 수사중이드니이십사일오후다섯시경에 시내장사동장안려관(長安旅館)을습격하고그곳에숨어잇든범인 공주군(公州郡)출생박영식(朴榮植)론산군(論山郡)출생의 김의원(金義元)시흥군(始興郡)출생의 민병근(閔丙根)(二六)의세명을 검거하엿는데 그들은대판(大阪)방면에서 재료를 밀수입하야 대규모로 가짜금비녀제조에 종사한것으로 만흔현품도압수하엿다한다

二百餘校를壓倒하며
養正軍斷然優勢
四百米리레優勝、百米에一着
今日甲子園全日本中等陸上

【大阪支局特電】 全日本中等陸上競技界의最高峯!第二十回全日本中等學校對抗選手權大會第二日은 二十六日午前九時부터 阪神甲子園南運動場에서열리엇다 前日의豫選에拔群의成績으로入選한 우리의養正高普는日本各地에서雲集한百九十五校七百餘名을相對로奮戰力鬪하야이날正午까지에行한 百米決勝에는李乙炯君力走하야 十一秒二의快記錄으로二着되엿스며 四百米決勝에는 安永載君이 앗가웁게六着으로入賞하엿다 特히이날興味의絶頂인四百米릴레이決勝에잇서서타임四五秒八로養正高普軍優勝하야 제바다選手들로하여금 啞然케하엿다 이리하야養正高普一同은 榮譽의覇權을目標로奮鬪中에잇다

正午까지의養正戰績

【四百米릴레이決勝】 ▲一着養正高普팀 (朴尙萬、安永載、金鍾元、李乙炯) 四五秒八

【百米決勝】 ▲二着 李乙炯(養正)十一秒二

【四百米決勝】 ▲六着 安永載(養正)

(寫眞은 四百米릴레이優勝한 養正高普팀)

實力으로는 優勝無疑

全日本中等學校大會에 出戰하야 勇躍中의 養正高普軍은今日正午까지에 行한四百米릴레이決勝에 優勝한것과 百米決勝에 二着으로入賞한것으로미루어보면 午後에行할千六百米릴레이와 五千米 兩種目決勝에는 養正軍特別한 支障이업다면 優勝하야 大量得點으로結局 日本中等校陸上競技界의覇權은 玄海灘을건너올것으로豫測된다

天氣豫報 曇一時晴

七五八미리의高氣壓은北中國과 日本의南海上에서퍼저잇고 日本海中部에는弱한低氣壓이잇서서 東으로進行하고잇다 半島는中部가개이고잇는外에大槪흐리며 昨夜는南朝鮮에小雨가잇섯다 明日은 흐릴것이다

昨日最高 二八、三
今日正午 二六、五

洛東江放水路堀鑿하면
統營一帶漁場全滅
沿岸漁業民間에反對運動
水害對策에一難題

【統營】 작년과금년에거듭한미증유의 대홍수에 일천륙백만원의 거액을 드리여호안공사를마친락동강(洛東江)이범람하고제방이 터저서 연안일대의농작지와 농작물과 인가는전멸이되다십피되여 실로 사오천만원의피해액에 달하고 삼십만이재민들은 가산즙물을 다떠나려보내고막천석지에헤매게되어기아선상에 방황하고잇다함은 일반이 주지하는바이지만 이에대하야 요로각관계당국에서는 락동강 치수근본책을 조사연구한결과 지류인남강(南江)을 사천만(泗川灣)까지 굴착하야 운하(運河)를파서삼천포(三千浦)근해에 물이빠지도록하는외에 남지서마산만(馬山灣)까지굴착하야 역시운하를 파서진해만의대근해에 락동강의범람하는 탁류를 방수하려는소위범람의 원인이 일천식에잇다하야 이천식 내지삼천식 으로하야 수세(水勢)를 완화하려는 계획이진행 하고 잇는바 이에대하야 진해만 삼천포만을중심으로 어업권(漁業權)을가진통영(統營)고성(固城)사천(泗川)창원(昌原)사군 어업자와이에관계를 가진 수산단체(水産團體)에서 궐기하야 총독부당국과 긔타각관계 당국자에게전기남강 남지양방수로 굴착반대 진정을발송하엿다 그이유는다음과갓다한다

만일에 남강 남지방수로가굴착이된다면 일조에 홍수가나서 낙동강의사나운 탁류가진해만과 삼천포근해 일대로쏘다저 내릴것임으로 그리되다면 설어어업(鱈魚漁業)만하여도 연산륙백만원 이상을들파하고 잇슬뿐만 아니라 치어양식장(稚魚養殖場)과 산난장(産卵場)으로 되여잇는 진해만일대와 삼천포근해의 어장(漁場)이 전멸상태에 빠지게되여 수십만어민대중은 필연적으로 실업을당하고 기아선에 울게될것은명약관화일것이라한다

初旬에大會開催

별항보도한바와가치 락동강 방수로 굴착반대문제는 점점요원의화세와가티 빼치게되고 여론이비등하야 드듸여 중대한사회문제로 전개되여 통영、진해정치설어어업수산조합(鎭海鱈魚漁業水産組合)을 비롯하야 광도온망어업조합(廣島網漁業組合)통영해산회사(統營海産會社)등 두개단체에서이에대한 선후책을세우려고 경남어업조합회의 찬동을 어더가지고 오는구월오일오전구시부터통영해산회사루상에서 통영、고성、사천、창원등 사군중요어업자와 수산단체대표자회의를개최하기로협의되여목하준비중이라한다

◆이것을못보면大損◆
靈效─神과如한
强精秘藥의話
病弱한身體가무럭무럭튼튼히
老年男女도면관으로更少年

世上에 藥種類는 幾千種잇지마는、어떤것이나 藥이效能잇는效가업다고하는中에、오직 한가지神과 如한靈效도 日本全國은勿論멀리 西洋에까지그 이름을 떨친 新發明藥이잇다。 オセロ라하면 눈이노란 西洋人까지 今日에는 얼는알어들을만큼 有名한데、發明된지 아직二三年도못된 オセロ가어재그리有名해젓나。 그것은 效能이 너무나優秀한때문이다世界無類의名藥 オセロ는 어떠케 有效한지大綱說明해보랴한다。

胃腸을强케함

病人이라는것은 반드시胃腸이나뿌다。 말하자면 胃腸이弱한故로病이생기는것이다。그런데オセロ를먹으면아모리弱하든胃腸도무럭무럭튼튼해지고 뼈만남은사람도곳살이포동포동하게살이찌며腹痛과설사가그치고또大便이몃칠식업든사람은順하게뒤를보게된다。

元氣가난다

感氣를조곰들거나熱이조곰나거나頭痛이잇서도胃腸만튼튼하면元氣가 衰하는일은 업다。 元氣는사람을病에對하야守護하는番兵인데 이것이顯著하게 衰한病人은 胃腸의故障때문에 호르몬이라는 精力의 源되는것이減中에 적어지는때문이다。이러한境遇에オセロ를 먹으면 사뭇元氣가나서、病갓흔것은어느틈에날려가버리고 찡그린얼골이빙그래 해진다

性慾과體力

늙엇거나 病으로나 左右間性慾의減退처럼 섭섭한것은 업다 特히四十前後부터 六十가까이된 사람이한창에 性慾이衰해서는정말재미를 모르고 世上을지날박게업으니 이래서야 世上에낫던本意가 업거니와 이러한사람들에게 オセロ는 卽體力이衰해빠진사람도 オセロ를조금繼續服用하면二十時代의潑溂한精力이涌出하게되고보고듯는것이모도 재미잇고얼골의주름살도펴저서 면관으로更少年이된다。

포근포근다시다

オセロ를 服用하면 新鮮한血液이만이 增殖되는故로 身體가포근포근더워저서 치워라는사람도 옷한겹덜입어도 손발이덥고 食物이아모거나 맛이잇게먹히는故로 自然살이오르는것이다

左와如한病은
대번에根治함
곳試驗해보시오

東洋古來의 不老長壽妙藥과 西洋의有名한藥을 合해서만든 オセロ는百病을一藥으로 根絶하는靈效가잇서 胃腸病、肺病、喘息、感氣、便秘、下痢、蛔虫病、産前産後、老衰치위라는데 等은 四五日續用하면 奇妙하게得效하거니와 平常虛弱한사람과腎虛는 多少長期의連服으로얼마나잘듯는지를 試驗해보시오

オセロ의藥價는 一二○粒一圓二十錢、二二五粒二圓、四五○粒三圓五十錢、七五○粒五圓、千八百粒十圓이오 各地藥店에서販賣합니다 近處에서사십시오 直接注文은藥價에 送料四十五錢加算
東京銀座一ノ オセロ洋行(振替東京七五○○三番)으로 送金申込次第送藥합니다
朝鮮大取次店 代理店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 新井大藥房

試驗用 無代進呈
オセロ 가놀라운靈效가잇는것을 實際로試驗해줍시사고 犧牲的으로試用藥及文獻無代進呈하오니前記本舖로申込하십시오

偉人頭山滿先生曰
이러하게잘듯는靈藥은처음

老生이 昨年에數粒下榮에게서オセロ라는 無臭大藥劑를勸하야 服用해보앗스나이オセロ가 잘듯는藥은처음이다 이야하기로 試驗服用한結果 胃腸에非常히조코 血色조코 特히元氣旺盛해져서 從來에못하던 어려운일도 쉽사리해내게되엇다。 以來オセロ는 持藥으로 一日도 노흘수업슬뿐아니라今後도 平繼續하야 愛用하랴고한다。 各方面에서 今日까지 여러가지 强壯劑라거나 精力劑라는것을勸하야 相當히 服用해보앗스나이オセロ가잘듯는 말로참말 靈效藥이라고 할만하다。 國家非常時를當하야 이러한 靈效藥이 發明되어 多數한病弱者를 救濟하는것은 진실로기뿐消息이다。 老生은 藥의 갑절이 노흔하기는죽지보다 實여서オセロ中는 더무도效果가 顯著하야 반갑기짝한일이업지마는 オセロ는 今日 이업슴으로반가운남아지知人、友人은勿論 모든老生의關係者에게 絶對의自信을가지고 勸하는바이다。 特히身體가 弱한사람을보면 到底히 默過할수업서 勸하는데그것이 또大端히 感謝를밧어、老生許에 謝狀이 每日가티온다

三南水害義捐金品

現金累計 二萬三千八百九十三圓五十八錢
物品累計 六萬三千六百三十五點

一金六圓五十七錢 三坂通三二 秀英學院職員及生徒一同
一金一圓 寶城郡文德面 白沙夜學生一同
一金三十錢 陵谷 金銀 同
衣類四點 陵谷 朴容燮
고무靴十七點 陵谷 金亨燮
衣類十八點 竹添町三丁目二五 유씨대법화

二圓 金浩鎭
十錢 權朱福
十錢 安宇植
十五錢 孫海植
一圓五十錢 張麟煥
二十錢 張岩伊
十錢 李文世
二十錢 金義東
三十錢 安鎔百
一圓五十錢 宋秉洛
五十錢 崔性記
二十錢 尹炳錫
二十錢 鄭東述
五十錢 尹相益
十錢 金季洙
三十錢 李榮徵
二十錢 金甲炫
二十錢 安東源
二十錢 黃順澤
二十錢 李花菊
二圓 鄭泰重
二圓 曺相柱
五十錢 文武伯
五十錢 玄在煥
十五錢 朴有容
二十錢 張錫春
五十錢 金鍾漢
一圓 金共然
五十錢 黃五釆
一圓 黃秋成
三十錢 方鳳鉉
一圓 尹相然
五十錢 李永壽
五十錢 黃鶴彩
三十錢 李維楨
三十錢 張基烈
三十錢 朴正圭
三十錢 朴致同
三十錢 無名人
三十錢 韓禹國
三十錢 趙三孫
三十錢 金錫基
三十錢 林東奎
二十五錢 金禧鎭
二十五錢 金福鎭
二十錢 崔麟孫
二十錢 崔萬海
二十錢 李顯國
二十錢 池永俊
二十錢 李達三
二十錢 林昌植
二十錢 金龍河
二十錢 金成龍
二十錢 林學奎
二十錢 辛光成
二十錢 李光春
二十錢 朴商南
二十錢 鄭永石
二十錢 柳董守
二十錢 柳章運
二十錢 金鎭國
二十錢 金昌濟
二十錢 李重哲
二十錢 李春林
十錢 徐東河
十錢 金光植
十錢 尹永俊
十錢 朴宗安

本社咸興支局經由分

一金二十四圓五十錢
內譯
四圓五十錢 金襄
二圓 任令寄
五圓 盤龍券番 潘小春
二圓 金光金銀商會
二圓 金漢綺
五圓 金一煥
二圓 林香心
一圓 李載澤
一圓 青年洋靴店

本社水原支局經由分(第二回)

一金二圓二十錢 水原郡儀旺面二里洞水洞振興會一同
內譯
二十錢 李鍾宇
二十錢 趙奉九
十錢 李弼傑
十錢 李弼浩
十錢 李璇九
十錢 李鍾玉
十錢 朴時學
十錢 李載福
十錢 李鍾來
十錢 申錫晃
十錢 李琪煥
十錢 李珏九
十錢 李鍾云
十錢 李璟九
十錢 李昌成
十錢 李鍾奎
十錢 李敬九
十錢 金章漢
十錢 全永實
十錢 林世萬

敦岩教會信徒一同

一金二圓四十錢
內譯
五十錢 金範鎭
五十錢 姜膺秋
二十錢 朴英子
十錢 趙桂順
二十錢 金璟子
十錢 李順萬
十錢 金秀子
十錢 玉慶姬
十錢 崔夫人
十錢 金貞淑
十錢 全仁順
二十錢 李健浩
十錢 金君實

在京都南朝鮮水災救濟會

京都市左京區田中玄京町二三ノ一
一金六十九圓十二錢
內譯
二圓 崔賢洙
一圓 南秉琪
五十錢 金氣珉
五十錢 趙鏞完
五十錢 潘又明
五十錢 鄭鎭雄
四十錢 鄭南壽
一圓 金月鳳
一圓 金仲善
一圓 鄭泰祥
一圓 韓又教
四十錢 金鎭恒
五十錢 金鍾河
二十錢 金貴鳳
二十錢 李致萬
五十錢 張且元
五十錢 尹元在
五十錢 金鳳奎
三圓 洪承用
一圓 朱榮燮
五十錢 梁南順
五十錢 金必相
五十錢 靑玉相
一圓 具花子
十錢 朱成伊
二圓 李文根
五十錢 金元淑
五十錢 金應文
五十錢 權先鳳
十錢 尹述文
十錢 朴洪成
五十錢 朴順天
五圓 金在俊
五十錢 靑斗萬
五十錢 靑斗榮
五十錢 靑仁道
三十錢 金一龍
二十錢 徐判吉
五十錢 金八鳳
一圓 李辰祥
五十錢 李起周
五十錢 鄭己岩
一圓 方貴用
一圓 張守奉
五十錢 鄭今用
三十錢 朴甲達
二十錢 崔奉守
三十錢 李泰萬
五十錢 金龍震
二十錢 陳淸一
三十錢 朴順澤
十錢 權在重
三十錢 朴恭緒

本社江華支局經由分(第四回)

一金十八圓十錢
衣服三點
內譯
二圓 權益成歲饌稧員一同
一圓 東義濟歲饌稧員一同
一圓 鄭貴成歲饌稧員一同
一圓 朴聖義歲饌稧員一同
一圓 高益成歲饌稧員一同
月串里大廟洞振興會員一同
十錢 黃永周
十錢 黃秀熙
十錢 趙君善
十錢 李在明
十五錢 姜悳永
十錢 崔炳善
十錢 李千甫
十錢 黃宅周
十錢 黃世仁
十錢 權泰順
二十錢 黃琰周
二十錢 李奉甲
二十錢 黃英熙
十錢 崔連植
十錢 柳宗燮
十錢 韓仁□
二十錢 黃顯周
二十錢 李斗甲
十錢 黃寅日
十錢 鄭圭承
十錢 黃重熙
十錢 柳永福
十錢 黃永熙
十錢 權泰鎭
二十錢 權重亭
二十錢 黃一周
五圓 新門里歲饌稧一同(前回漏落分追加)
二圓 東部振興會員一同
二圓五十錢 江華鎭路匠 積成稧員一同
十錢 黃獜益
三點 金德永
一圓 弘仁堂醫院
兩寺面德隆靑年會員一同
二十錢 金奇男
二十錢 金濚淳
二十錢 徐永福
二十錢 徐聖出
二十錢 徐在明
十五錢 徐相奎
十錢 金琦錫
十錢 韓明烈
十錢 金辰甲
十錢 朴平心
十錢 徐伊辰
十錢 金道元
十錢 徐貞得
十錢 劉東善
十錢 劉壽鉉
十錢 金文山
十錢 金聖元
十錢 金聖喆
十錢 金壽萬
十錢 金永先
十錢 金聖萬
十錢 徐明哲
十錢 金壽永
十錢 金日富
十錢 金京介
五錢 金三奉
五錢 金辰淑

南鐵機械工場職員一同

羅津港南滿洲鐵道會社建築事務所
一金十五圓五十四錢 郵送料金二十六錢除殘
內譯
一圓 趙泰憲
七十錢 金冕松
五十錢 盧惠圭
五十錢 金永書
五十錢 李在善
五十錢 辛院彬
五十錢 韓壽吉
五十錢 金用淳
五十錢 曺二述
四十錢 早崎次男
三十錢 玄錄煜
三十錢 辛學彬
三十錢 趙命順
三十錢 金宗洙
三十錢 金龜烈
三十錢 玉在龜
三十錢 玄智景
三十錢 申今濟
三十錢 趙信鎬

本社泰川支局經由分(第二回)

一金十圓十七錢
內譯
二圓 崔仁昊
一圓 無名氏
一圓 金龍波
五十錢 鄭泰雲
五十錢 崔錫珍
二十錢 朴鉉福
五十錢 白樂信
二十錢 韓贊國
五十錢 鮮于承
二十錢 崔만홍
二十錢 朴俊基
二十錢 金영화
二十錢 金貞柱
二十錢 白종호
二十錢 韓才三
二十錢 金유화
二十錢 安명수
二十錢 陳봉춘
二十錢 吳학녕
二十錢 朴문필
十錢 金시옥
十錢 康창호
十錢 吳처환
十錢 康인묵
十錢 方봉섭
十錢 文갑생
十錢 白뎡숙
十錢 朴영숙
十二錢 朴탄실
十錢 尹준화
十錢 朴씨
十錢 金너범
十錢 邊우세
十錢 金상범
十錢 李뎡봉
五十錢 金성건

本社咸興支局經由分

一金二十八圓五十錢
衣服十一點
內譯
五圓 咸州郡連浦面中坪里民一同(第二回)
一圓 衣服十一點
內譯
二圓 金翼晟
一圓 朱鳳煥
五十錢 李秉直
五十錢 李周翼
五十錢 金敎善
五十錢 姜道淵
五十錢 無名氏
五十錢 朴源弘
五十錢 崔相卨
四十錢 金孝基女史
三十錢 金泰煥
三十錢 裵觀夏
三十錢 申普均
二十錢 朱鍾穆
二十錢 金昇燮
二十錢 金基鎭
二十錢 崔民澤
二十錢 李炳琦
二十錢 崔仁淑女史
二十錢 申相坤
二十錢 崔相益
二十錢 申衡珠
二十錢 姜眞伯
二十錢 吳應喆
二十錢 朴龍默
二十錢 朱榮準女史
十錢 朱敎燮
十錢 朱楨鶴
十錢 尹鳳連
十錢 姜炳穆
十錢 朱榮咸
十錢 邊禮默
十錢 崔季淳
咸鏡南道廳小使及給仕一同
五十錢 李長燮
五十錢 李泰榮
五十錢 車吉南
五十錢 梶原優
五十錢 許在鳳
五十錢 原賀實
五十錢 兪漢俊
五十錢 上杉三郞
五十錢 山田欣也
五十錢 宮崎信雄
五十錢 金性鍾
五十錢 木次マツノ
五十錢 大畑房子
五十錢 新井アサ
五十錢 田口英子
五十錢 熊原信子
三十錢 韓威鏞
三十錢 安鍾鑿
三十錢 金輝韶
三十錢 金學德
三十錢 門傳正治
三十錢 林久喜治
三十錢 安孫子源次
二十錢 李官鳳
二十錢 澁谷浩司
二十錢 申二德
二十錢 池田利通
二十錢 康文昭
二十錢 曺鍾鉉
二十錢 金鎭平
二十錢 吉丸豊人

現金小計 一百七十八圓四十錢
物品小計 五十三點

林巨正傳 (537)

洪碧初 作
安碩柱 畵

결의 (四의十三)

리방의첩이 나이는 삼십을 겹이나 아이나이못한까닭에 젊은티가 아직 빠지지안헛는데 사람이 원악 나이들어보이지안케 생겨서 아양떠는 웃음과 맛부리는 몸짓이 보기에 우숩지아니하얏다 꺽정이가 방을 삼씨오쟁이 지우기 미안한 생각도잇고 기집의 꼬리치는것을 패씸히녀기는생각도 업지안컨만 기집의망을 사두는것이 조흘뿐 아니라 열골골샆스러운 기집이 여페와서 부니는것이 맘에 실치아니하야 기집을 손에너헛다 큰집에 심부름보낸 어린년이가 돌아와서

『삽작문 열어주세요 삽작문 열어주세요』

한참동안 소리소리 질은뒤에 리방의첩은 비로소 건너방에서 나가서 삽작문을 열어주엇다 어린년이는 리형의 말동과가티 놀고오느라고 느짓는데 주인에게 야단만날을 짐작하고 삽작안에 들어서며 곳

『제가 큰댁에 가니까 상주께서 그때사 점심을 잡숫겟지요 점심상이 나는걸 보고 막 오려고하는데 아가씨네가 뒷방으로 불러드려서 실패를 감어다오 보선볼을 감처다오 이것저것 시키고 못듯고 놔야지요 해달라는걸 다해주고나니 저녁진지 지을때가 다되어서 한달음에 뛰어왓는데 삽작박게 와서 한식경이나 됏습니다』

하고 발명을 부산이하얏다 아무리 발명을 잘하더라도 주인의성미가 잔소리마디나 할듯한데 아무소리가 업서서괴상스럽든지 어린년이는 주인의얼골을 살펴보앗다

『어듸가 편찬흐세요』

『속이 거북해서 누엇다가잠간 잠이 들엇섯다』

『찬 건너방에 왜가서 누어기섯세요』

『다락문미테 누엇기가 실혀서 건너방으로 갓섯다』

『지금은 속이 엇더세요』

『잠간 자는동안에 속이 좀 너누룩해젓다 그러나 저녁이 늣겟다 쌀내주께 이리오너라』

어린년이가 저녁쌀을 인함박에 바더가지고 샘으로 씨스러나간뒤에 꺽정이는 다락으로 올라갓다

막봉이와 농동이가 처음에 자다깨어서 꺽정이 업는것을 보고 혹시 뒤가 급하야 밤까지 참지못하고 나재뒷간에를 갓는가 생각들하는중에건너방에서 우숨소리가 나는것을 듯고 농동이가 선뜻 짐작하고 막봉이에게 말하야뒷공론들하며 꺽정이오기를 기다리고잇섯다 꺽정이가 다락에 올라와안진뒤에 농동이가

『건너방에 가서기섯지요 건너방에서 무어하섯습니까』

하고 물으니 꺽정이는

『건너방에가서 주인녀편네를 상관햇네』

하고 대답하는데 대답하는것이 예사말가티 수월하얏다

『그게 웬일입니까』

『가만잇게 내이야기를 듯게』

꺽정이가 리방의첩이 꼬리치든것을 일장다 이야기하니 막봉이는 바로

『형님이 기집복두 무던하구려』

하고 웃고 농동이는 한참

오디오

八月二十六日(日曜)

◇午後六時三分 하모니카獨奏 一、學生行進曲…알비作曲 二、귀여운中國人…宮田東峯編 三、東洋의薔薇…이바노비치作曲 四、詩人과農夫…스페作曲 五、카르멘…비제作曲 崔愁波

◇同六時五五分 修養講話 冒險의生活 朴瀾瑞

◇同八時 時調와京畿俗謠 一、時調와男唱지름 二、博物歌 三、은실打鈴 四、楊柳歌 五、야웅打鈴 趙牧丹

◇同八時三〇分 西道俗謠 一、愁心歌와 엮음 二、孔明歌 三、山念佛 四、긴아리랑 五、雜達歌 金玉葉 金蓮玉 李眞鳳

◇同九時 獨唱과바이올린獨奏 一、바이올린獨奏 길흔시내(黑人聖歌)엘만編曲 二、테너獨唱(바이올린助奏) 라ー고 헨델作曲 三、바이올린獨奏 멜로듸 스토요우스키作曲 四、테너獨唱 엘리編曲 五、바이올린獨奏 마리아 마스카니作曲 五、괴로운(黑人聖歌) 아모도몰으는슯흠 獨唱 李有善 바이올린獨奏와助奏 鄭正淳 피아노伴奏 金恩子

◇同九時三一分 歌詞 一、白鷗詞 二、길軍樂 文山紅 金花香 金永根

八月二十七日(月曜)

◇午後〇時五分 하와이안기타 一音樂 金聖燮

◇同二時 趣味講座 藝術家의最後(一) 咸大勳

◇同六時三〇分 童謠 安洞少女會員伴奏 安淳永 指揮 李碩和

◇同八時 夏期特別講座(其四) 性格의心理(一) 中央佛專敎授 金斗憲

◇同八時三〇分 雅樂 一李王職雅樂部演奏所로부터中繼一 一、壽齊天(管樂)(緖奏樂) 大笒 唐笛 奚琴 牙箏 二、獻天壽(細樂)(絃管短簫) 三、翊九如之曲(管絃並奏)(唐笛 奚琴) 李王職雅樂部員 指揮 樂師長 咸和鎭

◇同八時五五分 라듸오 드라마 어머니全一景 李泰俊作 配役 어머니…露香 萬基(아들)…韓宵 萬玉(딸)…康仁淑 尹承誠(외삼촌)…全 食母…李英淑 家庭仲介人…金河影 中流紳士…高重輔 建物會社員…羅英激 放送劇協會

◇同九時三一分 大笒과俗謠 一、短歌 二、六字백이 三、興打鈴 四、大笒獨奏 신아위 李錦紅 大笒 朴鍾基

祝四平街支局發展

四平街 特產貿易 穀物貿易、精米、精米並委託販賣 ㊟ 泰昌商會 電話三三七番 電略(タイ)又八

四平街 特產貿易 八 半島商會本店 電話園三二五番 工場電話長五二二番 電略八(又八)ハント

四平街 滿洲粟、胡麻 其他、雜穀貿易 益昌洋行 電話園四一七番 電略(エキ)又八(エキ)

四平街 滿洲雜穀 粟類貿易 信 信益商店 電話園四一五・三九九番 電略(シ)又八(シンエ) 私書函四平街局四番

四平街 滿洲雜穀 粟類貿易 和 平和商店 電話長二六四番 電略(ワ)又八(マルワ)

四平街 特產輸出商 K 廣信號 電話長四四九番

四平街 滿洲粟、雜穀輸出入 貿易商 東 東和商會本店 電話長八二番 電略ト(又八)トウワ 私書函四平街局第一五號

四平街 穀物貿易委託販賣 光 東光商會 電話園一五九番

四平街 東一商會

四平街 穀物商 三省號 精穀工場電話長三三八番 電話三六四番

四平街 朝鮮料理 大同館 主 李福女 電話一七三番

四平街 特產物貿易商 信 開信商會本店 電話長二五二番

四平街 內科、小兒科 花柳病科 共濟醫院 醫學博士 高文龍 電話五二〇番

⊙婦人、學生、農民、勞働者들읽는、新聞! 內外時事、政治、經濟、產業、文藝、常識趣味等記事滿載
純朝鮮文週刊新聞 서울시보
第十三號나왓소(每週土曜發行) 定價 一部五錢 一月十五錢 半年八十錢 一年一圓五十錢
【社友와支社大募集】
京城安國洞一五三 徐尙時報社 振替京城 電話光

淋疾에 新藥發見! 네오지린
全鮮到處藥店에잇슴
京城本町四丁目一二六 朝鮮總代理店 木村藥房 振替京城四五五七番

新案特許 穀物膨脹機 リード式 돈버리大王
五合의米가八升의米菓子로된다 製菓法傳授
『型錄進呈』
大阪市東淀川區本庄西一通 兒島製作所

酒客厭酒
음주하야서 仁丹만은 누구나환영한
爽涼味! 增健感!
待望今ローズ仁丹十錢包에 ダブルケース添附發賣中
ローズ仁丹

空氣와물의 巧妙可驚할物理療法

日獨佛專賣特許=世界的發明品

男 生殖器 短小 衰弱

自己가秘密使用으로
眞空吸引力=으로 健全發育
水治療法=으로 機能復活

鬼神이북을울이고

雲間을달인다고、녯사람이想像하야、무서워하던 번개다그正體가 電氣인줄알고 電信、電話、電車、電燈이나온바、다시空氣와물과의 作用은、一層興味와實益을 주는것으로逆風을치밀고 배가당기는 帆船도工夫되여잇고 彈藥업시小鳥쯤은잡는空氣銃도잇소 도眞空과光線의奇妙한關係硏究가 出發點으로된도젠과 라지움이發見되얏스나 저ー

大空에나타나는무지개

水分의天然의 理學作用에依하야서出現하는 造化의美術도空中에 山川樓閣의나타나는蜃氣樓는造化의奇術이라 할만한것으로서다시人工에依한理學的應用은、急流의 落差를利用한發電所가잇고、蒸汽機關은 물의應用에屬하나、물에는 壓力、膨脹力等더욱 여러가지자미난 微妙한作用도잇서서 近來歐洲에서는 水治療法이專門的으로流行하는途上에잇스나、여기에 世界的發明의 物理療法器도서 日、獨、佛、政府의專賣特許가나고 海外에서도 無比의好評을博得하고잇소。

ホリック 眞空水治器는 理學的構造極히 精巧

하야서少形이나効力이 非常이크오從來藥物療法으로는、顯著한効果를 보지못하엿든男生殖器의發育不全、弱少、機能障害에、本器를 自己가秘密히使用하야 一日一回、一回約十分間直接物理療法을 行한즉最初의第一回째부터 곳目前에驚嘆할만한眞空吸引力에依하야 生理的으로安全한輸血作用이生殖器에行하야저서、新鮮한血液이 滿潮的으로 流集하야서組織을擴張하고筋肉을十二分으로 緊張식히여具體的으로 發育力을促進하야서

메돌에 數字的 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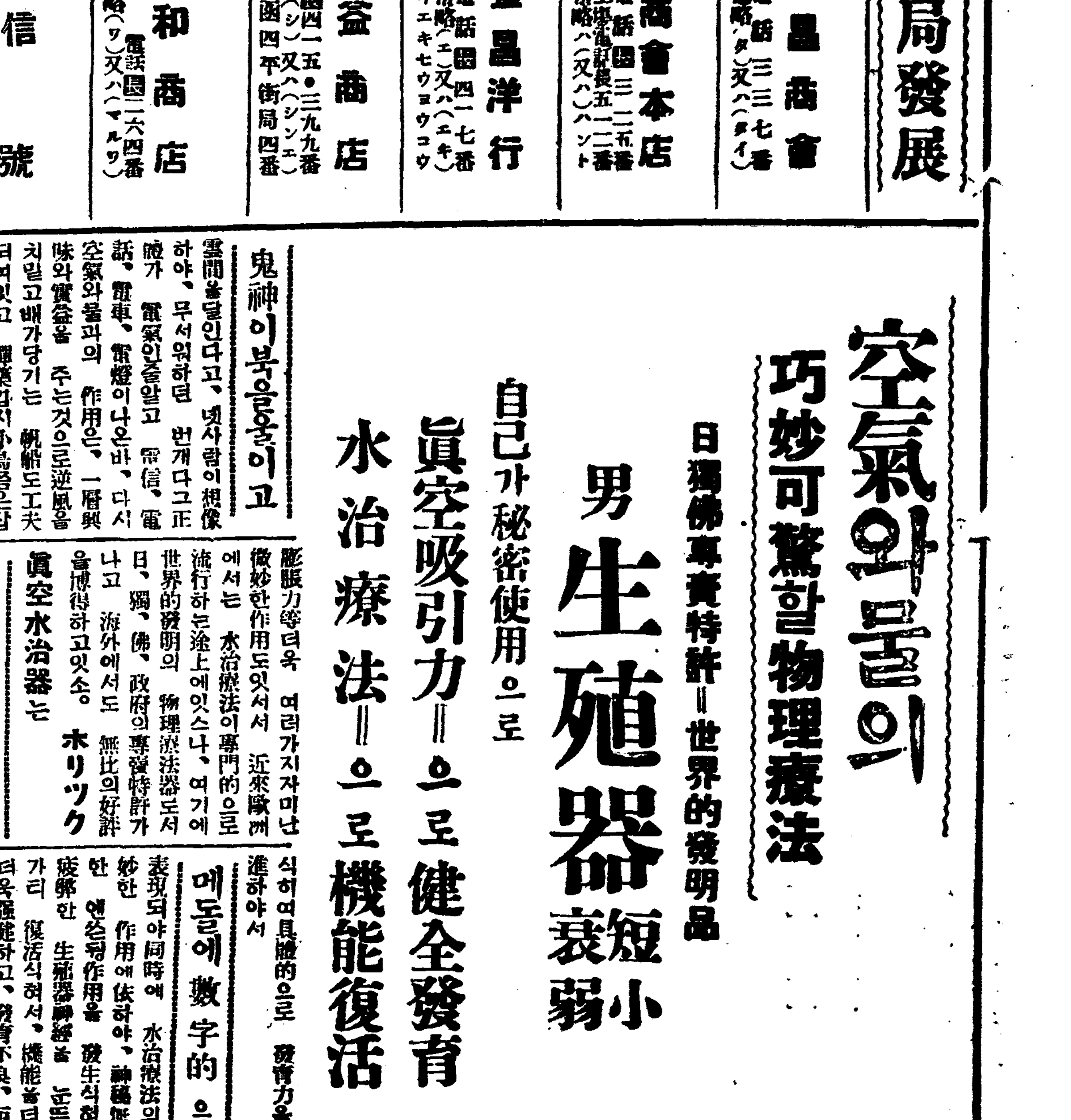
表現되야同時에 水治療法의微妙한 作用에依하야、神經衰弱한 疲弊한 生殖器神經을 發生식혀서 눈뜬것가티 復活식혀서、機能을더욱 더욱强健하고、發育不良、短少도解消되오

健全히發育 하야、不自然

行爲、過房의 害、遺精、夢精、早漏陰萎도回復하고、훌륭한科學의學說대로生殖腺의 機能健全을根本的으로 하야能力記憶力增進되야서 勇氣奮發心도나이에人生無上의幸福을增進할뿐안이라恒常生活氣分까지快活히되야

處世成功上의運命

을開拓하게되오。 有名醫學博士六十名도一齊히 實驗證明推奬되야、特히實驗界의感歎好評이날노놉소이神秘한 發明品에依하야 靑年胸底의煩悶을解消식혀人生의前途에光明을 바드다。



◎貴重한一日을空費치마라。

光陰은如流라開拓迂遠한 藥法이나無責任한 器具或은似而非의模造品에迷한効力은夢想한것은過去로되얏다 靑春은 不再來라現在 一日은 萬金에 貴하다 一日이라도 빨이 本器의物理的偉効를 體驗하야서 男子로난滿足과幸福을完了하라。

日、獨、佛政府專賣特許 登錄商標

醫學博士六十氏實驗證明推奬
博覽會에서名譽金牌受領

◇ホリック眞空水治器(一具)金六圓 送料 內地三十錢 植民地六十錢
◇ホリック包莖安全器(一具)金四圓 送料 內地二十五錢 植民地四十二錢

◎包莖은ホリック包莖安全器로無血無痛不裂하고혼자서安心簡易하게形成함
代金引換希望은(治療器名을明記하야、說明書付라注文하면即送함、代金引換送料五錢增함

◎無料進呈(非賣品) 圖入說明書

男子의生理的勸造化의秘密、子를開放的으로滿載、本器의內容도詳細히說明함 特히生殖器弱小男子의深刻한悲哀의事實本器實驗者가큰滿悅을어든感謝告白文도多數揭載되엿음 꼭一讀하시고業書로照會하시요、全部無料로匿名密送함。

가짜가 잇소、必히ホリック란四字商標(마ー크)에注意를要함。

東京市芝區神谷町十八 振替東京七七三九 新療法研究所

水災에우는同胞에 輻湊하는同情의涙

全江華가總動員 災民救濟의烽火

七個歲饌稧와三百振興會蹶起 本報支局에寄托品遝至

【江華】로천에바향하는눈물겨운리재민의구호소래가들려오기시작한후 전국에서 일어나는그반향의 대부분은 역시가난한이들의가슴에서 일어난다 우리강화에도 로거마의 부호가적지아컨만 동정의손을 내민이는지극히적다 아직까지 그러케급한구호의 부르지즘도 대부분의부자집 대문을 넘어드러가지못하고잇다

자ㅣ이제부터는 강화의 브자집에서 굿게다덧든 대문을 열고 전조선을들어서 떠드는리재동포의구제의 군호소래에 귀를기우리자 그리고 구호의손을내밀기를 주저하지말어라 재지의동포는 방금그들의 회답을기다린다

우리는 우리동족을 구할의무가잇스면서도 아직것 잠잣고잇슴은 너무나인정이업섯다 한그릇의밥가온데서 한술이라도 난호자! 구원의봉화는 넉넉지못한사람에게서부터 드럿나 뒤를니어드러오는 소식이모다 그럿다 이십오일아츰에도 본보강화지국에 출선하여 어린아동의세찬계를비롯하야 칠개소의 세찬계(歲饌稧)에서 제작기 금의봉을피탁하고 돌아갓스며 니어삼백오십개소의 농촌진흥회가 총동원하야 의연금품을 모집하는중에 출선하야 읍내에잇는동

부천흥회와 대묘동진흥회 던우청년회 온수성흥회(溫水聲公會)에서 의연금품의 긔탁이잇슴으로 즉시본사에 송달키로되엿다

(사진은 대묘 진흥회장 [illegible]氏)

罹災同胞救濟 冒雨戶別募捐 烽燧婦人會美擧

【高城】 고성군고성면봉수리(烽燧里)부인회에서는 나날이 지상을 통하여보도되는 삼남지방의 수해로말미아마 비참한처지에서 헤매는 동포들의실상을듯고함재순(咸在淳)씨외수명은 나리는장마비도무릅쓰고각호를방문하며수금하여본사고성지국에가지고와서 수삼백원을 거둠한창작과 지리한장마에 어장(漁場)으로생활에고통을 밧고잇는 우리로서는 열성(熱誠)이니 이것을 재지로보내여 달라고부탁 하면서진체송금로까지내고갓다한다

去益惡化하는 借地料問題

地主는家屋毁破準備 借地人側은結束防止

【平壤】 신흥발전지대의중심이되여잇는 서평양일대에 수천평의토지를 가지고잇는 지주와 서평양 차지인조합사이에서 차지료(借地料)나지지가(地價)문제로 대립상태에잇서서 중대사회문제화한다함은 루보 한바어니와 최근지주장동환(張東桓)씨가괴리 차지인김찬서(金燦瑞)방창범(方昌範)량씨에게 보통지가의륙배나 되는고가의 지대(地代)를 요구하여 문제화햇고지주의요구에 응치안는다 하여립퇴청구(立退請求)를하기에 일으럿든바 이십오일 립퇴긔간에해당하므로지주측에서는법적수속을밟아강제로가옥을훼파할 준비를한다는소식을들은서평양 차지인조합을필두로 창전리(倉田里)만수(萬壽)경창(景昌)등사개차지인조합사십여명이정오부터 집합하여 지주의무리한훼파작업을 방지코저 진용을정제하고잇섯스나 지주가 보이지아니함으로 오후네시경에 해산하고말엇다

이십칠일에는 긔어코 지주측에서 가옥훼파작업을 행한다는 소식이도들니어 다시 차지인측에서는 어느때에나 집합할수잇도록타협이되엿다

평양차지인조합련합회대지주들의 싸홈은 금후만흔주목을끄을고잇다

基督少年會赤誠

【楊市】 양시본보지국에지난 이십일일에 양시긔독교 소년면려회(楊市基督教少年勉勵會)에서푼푼이 모은돈님원삼십전을 류원내(劉元內)이란소년이대표로가지고와서 삼남 리재동포에게보내여 달라고긔탁하엿다 또양시북학생회에서와 양시 시동동(楊市市東洞)최제선(崔濟善)씨가각각금일원식을가저왓다

納涼音樂延期 二十七、八日로

【金泉】 긔보=경북김천협제양복점 덕흥자전차점주최와 본보김천지국후원의 「납량음악과 영화의밤」은 이십오、륙량일에 개연하려고 만반준비가 정돈되엿든바 극장의관계로 부득이이십칠、팔량일로 연긔되엿다한다

咸興署員來西 男女五人檢擧

某重大事件綻露?

【興南】 지난이십일일함흥경찰서원과 홍남서원이 합력하야 서호진(西湖津)에잇는 최석룡(崔錫龍)외에 마루보시 운송점원 림월상(林越相) 부전조지점원 고인천(高仁天)한련일(韓連驥)송후남(宋厚男)녀사등 오인을검속하야 함흥경찰서로 압송하고 한련일의 안해 김홍순(金洪淳)녀사는 임신중이관계로불구속으로 오라고하엿다는데 일반은 무슨비밀결사가 탄로되지나? 안헛는가하야 주목중이라고한다

◇寫眞 (上) 大邱朴祐植氏가 回甲宴을 全廢하고 그 費用으로 衣服百十五點을 新製하야 水災同胞에게 보내는 救濟品과 그 家族一同 (下) 同 救濟品을 本社大邱支局에서 發送하는光景

一斗米모아 罹災民을同情

『드르가』會丹誠

【鏡城】 함북경성예수교회안에 잇는『도르가회』는 예수당시 자선사업에헌신[한도르가]라는 녀자의선행을 실천하기위하야 조직된녀성단체로 그회회원은 매일조석에 양미중으로한술식모아두엇다가 그것을 매년 크리스마스때에빈민에게나누어주어오든바금년은삼남수해로말미암아재지에서방황하는가련한 리재동포를 위하야 충심의성의를표하고저 교회에서 모힌돈오원과 당회에서모힌돈십원을 재지에 보내여달라고 본보경성지국에 긔탁하엿는데 금번삼남수재에잇서서 특히 경성부인회와 『도르가』회의 정성에는 일반이 감탄들이한다고한다

朔寧市民의 感激할同情品

【朔寧】 삼남수재동정열은백열화로 눈물겨운 본보긔사에경긔도 삭녕시민을 움직이여본사삭녕지국에서도 제이차로 호별방문권유한중 위선 모은것을제이차로 본사에 보내고어압프로도적극적활동을 할터이라한다

楡川郵便所 電信電話開通

【淸道】 경북유천우편소(楡川郵便所)에서는 종래우편사무에만국한되여 전신전화의련락이업서서 적지안흔 통신상불편을늣겨오던바 지난 이십삼일체신국으로부터 전신전화 사무취급의인가가나와 목하공사에착수중인데 지방유지일동은 긔계설비의 일부를 원조키위하야 현금이백팔십원을 우편당국에 긔부까지하엿스므로 멀지아니한 장래에전신전화가 개통되리라한다

李海春訓導 十週勤續表彰

【信川】 지난십이의황해도해주군검단면(海州郡檢丹面)공립보통학교리해춘(李海春)선생의 십주년근속 긔념표창식을 제륙회동교강당에서 성대히거행하엿다한다

地方人事

▲朴千鎰氏(崇德學校訓導) 新任人事次二十三日本社平壤支局來訪

▲吳鐵石氏(咸興郡[illegible]病院醫師) 新任人事次去二十三日本社咸興支局來訪

▲金春尋氏(安東縣雄辯大會[illegible]) 禍로撫順中[illegible]釋放되야지난十八日安東縣支局來訪

▲吳班欽氏(安邊郡培花面長) 新任人事次去二十三日本報安邊支局來訪

▲吳鍾璉氏(本報金海支局總務) 局務를帶하고 二十五日本社入京早沙洞六四番地에

同情音樂素劇

博川支局後援 來卄八日밤에

【博川】 금번삼남수재민을위하야 본보박천지국에서는 의연금모집에 맹렬히활동하든바 금번동아、조선양박천지국후원으로 이십팔일밤에 박천천도교종리원에서 음악과 소인극을 개최하기로되여 벌서부터 인긔는집중되여 대성황을 예긔하고잇다는바 음악과각본은 아래와갓다고한다

第一部音樂…管絃樂 獨唱
舞蹈 짜즈밴드 넌센스
第一部劇…社會劇 논팔고 밧팔고
喜劇 人間醫師

同情音樂會와 活寫는皆禁止

木浦警察에서

【木浦】 목포긔독교청년회음악부에서는 금번남조선 수재리재민동정음악회를 개최하랴고 제반준비를 마친후 경찰당국의 량해를구하엿든바 경찰은 그러 허가치아니한다고 할수업시 중지하엿다하며 또목포극장 에서도 수재구제동정활동사진을 꾸며 개하야 그수입으로 수해리재민을 만분지일이라도 구제하랴고 경찰당국의 량해를 구하엿스나 역시허가치아니하야 부득이 중지하엿다한다 이소식을들은 본보목포지국에서는 전긔 량단체에서 개최하라든 음악회나 활동사진이 준비만은 이미되엿슴으로 직접지국주최로 공개하라고 루차경찰의량해를 구하엿스나 역시허가치아니하야 할수업시중지하고 말엇다한다

懸賞入選小說 마음의太陽 (七八)

玄卿駿 作 金熊超 畫

폭풍우 【五】

「날은 승우는 들어오지안헛다

이튼날 현이예언한것과 갓치 반도극장 게시판에는 종업원들의「급료이할감하」다는 통고가 정식으로 나부텃고 그리고 각자에게는 서면으로 통지가 잇섯다

「이할감이면 어떠케 되느냐?」

극장안은 물끌틋하엿다

「죽엇지 별수가 업다」

「넘우 과하다」

「주인놈을 붓잡어내라」

하고 여럿이 질서업시 떠드는 속에서 경호는 소리를놉혀웨첫다

「제군! 좀진정하고 내말을 들어라」

여럿은 갑작이 조용하여저서 경호에게로 일시에시선을 돌녓다

「제군! 반도극장주인은 지금 우리들 종업원의급료를 이할감할것을 선언하엿다 여기에 대하야 우리는 절대반대다 웨그러냐? 하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아사를 강제하기때문이다」

「그러타 우리들은 굶어죽는다」

「처자가 굶어죽는다」

하며 여럿은 따라서 고함첫다

「그럼으로 우리는 여기에서 단결을 짓어가지고 주인과 다시 교섭해봐야 한다」

「그러타 주인에게 진정을 해보자」

교섭위원회가 갑작이 열렷다

교섭위원으로 경호와현이 선거되엿다

「김군 부탁이다 우리들의목숨은 너의들께 달녓다」

「념려말어라 우리들은 목숨을 밧치고 싸울것을 너의들에게 맹서한다」

하며 현은 흥분되어서 제가슴을 쥐여뜨덧다

「부탁이다」

「힘껏 싸워다구」

경호와현은 구든결심을 품고 주인의저택으로 향하엿다

경호에게는 낫익은곳이엿다

「김군!」

하고 현은 떨니는목소리로경호를 불넛다

「웨 그러는가?」

「만약에 교섭이 결렬되면어떠케할텐가?」

「결렬되면?」

경호는 갑작이 생각나지안헛다

만약에 교섭이 결렬되면?

그때는 어떠한 방침을 취하여야 할까?

그의 머리속에는 격려하든 여럿의말이 떠올낫다

경호의가슴은 무거운 그무엇으로 꽉찻다

무거운 발낄을 옴겨놀때마다 끌수가 울리우며 머리속은 엇슬엇슬하엿다

현도 아모말도업시 묵묵하게 뒤에 따라오며 무거운생각에 잠겨잇섯다

문전에 도착하여 압헤 가로맥힌 거대한저택을 듸려다보니 알수업는 한숨이 저절로 나왓다

이윽고 응접실에서 그들을 면대한 주인은 그들의진정을 일일히 들은후 번들번들한 이마를 어르만지며

「나도 자네들 사정을 몰으는것은 아닐세 특히 김군에게는 만흔수고도 끼친터이라 여러가지로 신중히 생각하여 보앗네만 이불경긔로서는 어떠케 할수가업네……만약에이대로 진행헌다면극장문을 닷더버릴수밧게는 업스니까?」

「아니올시다 그것은 당신의 넘우나 과한 리익을 어드려는까닭입니다 이번일은 사실 우리들의 생명을 좌우하는일입니다」

하고 경호는 약간흥분되여서 말하엿다

「과한리익을 어드려는 까닭이라?」

하고 그는 너털우숨을 우순다음

「내게도 생명에 관한문제네 극장이 폐쇄되면 나두 큰타격이니까?」

하고 냉소를 하엿다

「그럿타면 우리는 최후수단을 취할수밧게 업습니다」

하고 현은 충혈된눈으로 주인의얼골을 뚜려지게 처다보앗다

「최후수단? 맘대로 해보게나」

한다음 그는 일어섯다 더볼일이 업다는듯이——

교섭은 맛츰내 결렬되엿다。

종업원들의 격분은 극도에달하엿다

「인제는 싸울수밧게 업나」

「긋까지 싸우자」

하며 긔세를 놉피고잇는 그속에서 경호는

「제군! 진정하여라」

하며 무대우에 올나서서 두팔을 내저엇다

白晝沙里院에 食刀强盜出現

現金八圓强奪逃走

【沙里院】 이십오일아츰구시경에 사리원구천리(駒泉里)삼백사십이번지 중도귀작(中島龜作)의집에 주인은 나가고부인이부억에서 일을하고 잇는때에 돌연이십사 오세가량되는청년한명이 나타나서 처음에는주문도리처럼 무엇을사라고 권하다가 큰식도를들고 부인의 목을찔은후 돈팔원을 강탈하여가지고어대로도주하엿는데 이소식을접한당지사리원 경찰서에서는 서원이 총동원하야 범인을엄밀히 수색중이나 당일오후 오시까지 체포치못하엿스며 피해자는 하등생명에는 관계가 업다고한다

關東庭球大會

來月卄三日於洪川

【洪川】 홍천지방에서만흔활동을 하여오든 화촌면서산체육회(城山體育會)에서는 오는구월이십삼일부터 화촌농림보통학교 코ㅡ트에서 제삼회관동정구대회를 개최한다는데 발서부터 각지의 출전경향을예긔한다고한다

八月二十七日밤부터 朝鮮劇場新公演
階上 大人五十錢 小人三十錢 階下 大人三十錢 小人二十錢
劇團 新舞臺 中央大公演 凱旋하는京城第二週 [illegible]
金駿人 作 喜劇 人生解說 一幕二場
李文行 作 悲劇時代 歸鄕 一幕二場
幕間 獨唱=康海山、朴玉眞、康福教、金聖福、金允心 스켓취=康福淑、朴英姬
正喜 龍基編 五百圓事件 一幕
秋朝朝劇團全員出演 [illegible]
容赦없는 戰爭과母性、끌드되가！스•시나라、卒業試驗、凡人生、生活의殺計、나는•가모이닌장、伯爵令孃、보레로또키호데、豪華王國、秘密、푸리스파ㅣ젠니、靑春의十字路
仁寺洞 朝鮮劇場 電光三六

八月二十五日부터大公開！ 폭스會社特作全發聲猛烈大活劇 젠구레이氏原作 西部의放浪者
루이스킹그氏監督作品！猛烈조지오부라이엔氏主演 妖花모린오사리반 助演 武裝乘馬隊의猛襲 激烈한銃戰！！冒險！痛快！飛躍！陰謀！悽慘！戰慄！이것이本篇에點綴된맨스다폭스自慢의冒險篇의白眉！
MGM超特作全發聲日本版 巨匠킹그비도아氏大作品！
巨星웰래스비아리氏天才잭키쿠파別 主演 참프
次週豫告 蒼白한眼瞼 양그아메리카乞期待 初秋銀幕에登場할朝鮮名畵 七番의小事件 主演 雲奎氏 期待하라
當ル廿六日封切(四日間) 待望の名畵殘菊の鑑賞シーズンに放つ東西二大巨豪篇 如[illegible]の御希望に依り再映!! 階下席 大衆料 金廿錢均一 新映畵社第一回超特級全發聲 原作•脚色 伊藤大輔
授影 伊佐山三郎 錄音 田坂具隆 オール•トーキー 昭和新撰組
小杉勇、島耕二、瀧花久子、佐久間妙子共演 獨乙トビース映畵超特級日本版 新鋭ブランク•ウイスパー快心の作 黑衣の處女 (御服の處女)出演者 ドロテア•ヴィーク嬢 ヘルタ•ティーレ嬢
最後の決演 新興キネマ超特級時代劇 石田民三監督作品 風流奴舞 吉頂寺光、望月禮子主演 次週卅日(短期四日間) 月形龍之介、森靜子主演 天保水滸傳 FOX超特作忍術映畵 チャンドゥ
鐵山洞 電光三九五 優美館
永樂町一 電本三四 中央館
八月卄六日낮부터 巨彈巨彈또다시巨彈 每日二回낮一時밤八時開映 大衆料金階上十五錢階下十錢均 松竹키네마社特作品 大恩 센스사랑스러운과부 坂本武、突貫小僧 主演 파라마운트社特作品 喜劇 도는世上의돌 고도는것 리챠ㄷ딕구스氏 力演 참이야말노痛快하기끗업는名篇보시라、참으로興味百%의大名篇 松竹키네마超特作品 現代名畵 天龍이下降하면 全十卷 川崎弘子、八雲理惠子、竹內良一、江川宇禮雄主演 참이거야말로여러분게서苗待하시는巨大篇 꼭보시라눈물과愛情모든것이여러분을感激안시키고는잇지못할大作品 次週(콩쥐팥쥐)
鍾路五丁目 電光一七五五 第一劇場